

##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 수용과 비판

이 종 하

**주제분류** 사회철학, 비판이론

**주요어** 호르크하이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보조학문, 권위와 가족, 계몽의 변증법

**요약문**

호르크하이머에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은 유물론적 사회이론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정치한 사회이론의 정립과 나치즘 발생과 확산을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방법론이다.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비판철학, 계몽철학으로 이해한다. 동시에 그는 역사와 사회분석에 있어 심리주의화를 거부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정신분석학이 호르크하이머의 사회철학에서 보조학문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수용은 나치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권위와 가족』은 분석배후에 정신분석학의 범주를 사용하지만, 권위-가정-나치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실패했다. 『계몽의 변증법』은 퇴행, 억압된 것의 회귀, 투사, 편집증, 거세의 개념을 나치발생의 정신분석학적 해명과 문명비판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다.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수용에서 단절의 징후를 찾기는 어렵다. 이것은 보조학문으로서의 제한적 수용과 비판적 거리두기를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이다.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 수용상의 태도는 한국사회의 철학적 반성을 시도하는데 있어 이론적 자극과 함께 한국 사회에 범람하는 심리치료 산업을 비판하는 데 강력한 대항논리를 제공한다.

## 1. 들어가는 말

호르크하이머 연구자들에게 그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수용문제는 중요한 연구 관심이 아니다. 이는 호르크하이머가 프롬이나 마르쿠제처럼 프로이드와의 이론적 대결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사회심리학적 테제들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뇌르의 지적처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호르크하이머 철학 전반에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sup>1)</sup> 프롬과 마르쿠제의 의미 있는 연구 성과 뒤에는 사회분석에 있어 정신분석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호르크하이머의 지원과 후원이 있었다. 호르크하이머는 그가 사회연구소 소장이 되면서부터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을 비판이론의 핵심적 방법론 중 하나로 삼고 연구프로젝트를 가동시켜 왔다. 마틴 제이는 1939년 이후 호르크하이머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2)</sup> 제이의 주장과 달리 호르

1) G. S. Noerr., "Zwischen Sozialpsychologie und Ethik", in: O. Decker/C. Türke (Hg.), *Kritische Theorie- Psychoanalytische Praxis*, Gießen 2007. 18쪽 참조.

2) 마틴 제이, 황재우 역, 『변증법적 상상력』, 1986, 167쪽 참조. 제이의 이와 같은 주장은 유물론적 사회이론의 이론적 풍부함을 위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결합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프롬과 사회연구소와의 결별이 이루어진 1938년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다. 프롬은 1935년 논문 「정신분석적 치료의 사회적 조건」에서 프로이드 테제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른바 수정주의의 길을 걷는다. 프롬의 수정주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보편화에 관한 부정, 성적 욕구의 절대화의 부정, 죽음의 본능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해 프로이드 이론의 사회학화와 과학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1930-1938년까지 사회이론과 정신분석학의 결합을 위한 호르크하이머와 프롬의 협력관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호르크하이머는 프롬의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1938년에 발생한 두 사람의 결별 이후에도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드의 이론적 범주를 사회분석과 역사철학에 일정하게 활용한다. 제이의 입장을 따르고 있는 민형원 교수의 주장처럼 프로이드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이 1938년 이후 '아주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수용상의 변형만이 차이가 날 뿐이지 아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이것은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 수용이 처음부터 전폭적 수용이 아닌 유물론적 사회이론과 부정적 역사철학을 구성을 위한 제한적 활용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민형원, 비판이론과 정신분석학(3)-초기비판이론으로부터 고전적 비판이론으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크하이머는 중기, 후기에도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대한 수용과 비판을 일관되게 수행했다. 실제로 호르크하이머가 정신분석학적 범주를 활용한 저술과 의미 있는 저작을 발간한 것은 1939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sup>3)</sup> 호르크하이머에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은 첫째, 유물론적 사회이론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정치한 사회이론의 기획을 위한 방법론과 둘째, 나치체제의 발생과 확산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적 방법론의 성격을 갖는다. 호르크하이머의 정신분석학적 범주를 적용한 저작들은 대부분이 나치 발생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위한 목적이었다. 이 글은 호르크하이머의 철학에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수용과 비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며, 나치분석을 위해 어떻게 정신분석학의 범주가 활용되는지를 해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1) 비판이론과 정신분석학의 관계에 관한 호르크하이머의 이해 2) 정신분석학의 비판적·계몽적 성격 3) 나치 체제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해명의 한 시도로서 『권위와 가정』과 『계몽의 변증법』의 분석 4)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관한 호르크하이머의 비판과 의의 및 한계를 다룰 것이다.

## 2. 정신분석학과 비판적 사회이론

호르크하이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관심은 그의 철학의 태동기인 192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관심은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차원에서 촉발하였다. 제이에 따르면 1920년대 헨드릭 드만(Hendrik de Man)에 의해 주도된 유물론과 심리학의 관계에 대한 담

미학』 제51집, 2007, 130쪽, 주1참조.

3) 1939년 이후 호르크하이머의 정신분석학 관련 저술목록은 다음과 같다. “Autoritärer Staat”(1940), “Die Psychologie des Nazitums, Antisemitismus: Der soziologische Hintergrund des psychoanalytischen Forschungsansatzes”(1944), *Aufkl rung der Dialektik*(1947), “Autorität und Familie in der Gegenwart”(1947), “Ernst Simmel und Fruedschen Philosophie”(1948), “Vorurteil und Charakter”(1952), “Zur Psychologie des Totalitären”(1954), “Die Psychoanalyse aus der Sicht der Soziologie”(1968).

론이 프랑크푸르트 대학 주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호르크하이머의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심리학자 슈만과 학위논문 지도교수였던 레오 코넬리우스를 통해서였다.<sup>4)</sup> 그는 프로이드식의 정신분석학이 형성심리학보다 유물론적 사회이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sup>5)</sup>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 의미 있는 자극을 준 인물은 레오 뢰벤탈이다. 뢰벤탈은 호르크하이머의 정신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란다우어를 소개 하였다. 호르크하이머는 그에게 심리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란다우어의 프랑크푸르트의 정신분석 연구소 설립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이 연구소의 소장 란다우어와 그의 연구원들을 초대해 세미나와 강연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sup>6)</sup>

호르크하이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관심은 맑스 철학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그는 초기작인 『여명』에서 “심리학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유물론적 역사서술은 결핍”<sup>7)</sup>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초기의 관점은 사회연구소 공식 취임연설에서 좀 더 분명하게 표명된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맑스는 “경제적 삶, 개인들의 심리적 발달, 좁은 의미의 문화영역에서 발생하는 변화들 간의 연관문맥”<sup>8)</sup>을 규명하는 일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는 “심리적 연결고리의 복잡한 역할을 등한시하고 무시”<sup>9)</sup>했기 때문이다. 호르크하이머가 “철학이론과 개별 분과학문들 간의 전향적이고 변증법적인 상호침투와 발전”<sup>10)</sup>을 강조할 때, 그 핵심은 맑스 철학과 정신분석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의도

4) R. Wiggerhaus, *Die Frankfurter Schule*, Frankfurt a. M. 1996, 59쪽.

5) 마틴 제이, 황재우 역, *변증법적 상상력*, 돌베개, 1986, 144쪽 이하 참조.

6) M. Horkheimer, *Gesammelte Schriften* Bd 5. Frankfurt a. M. 1987, 403쪽 참조. (이하 호르크하이머 전집 GS로 약칭). 1928년경 호르크하이머가 시달리던 괴로움은 준비한 노트가 없이는 강의를 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다. 호르크하이머는 1년간의 치료를 받았다. 이듬해인 1929년 정신분석학 연구소는 호르크하이머의 지원 아래 사회연구소 건물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7) GS2, 368쪽.

8) GS3, 36쪽.

9) 같은 책, 33쪽.

10) 같은 책, 32쪽.

를 함축한다. 방법론으로서 정신분석학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정당화는 사회발전 메커니즘이 맑스의 주장처럼 한 가지 차원으로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사회적 삶과 사회발전, 역사 과정에 관한 인식들은 다양성의 차원에서 다양한 매개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방법 중의 하나가 심리학이다. 호르크하이머는 정신분석학이 맑스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물론의 질적 풍부함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정신분석학이 인간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지식과 함께 심리적 기제가 사회형성과 발전에 어느 정도로 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해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sup>11)</sup> 호르크하이머는 맑스의 경제적인 메커니즘 배후에 깊이 작동하는 심리적 과정,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연결고리로서 정신분석학에 주목한다.

인간이 보다 높고 합리적인 조직행태를 통해 경제적 관계를 대체하는 대신, 인간의 힘과 필요를 뛰어넘어 성장한 경제적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수치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계층의 행위가 인식에 의해서가 아닌 의식을 왜곡하는 본능의 추동체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sup>12)</sup>

인용구에서 보듯이 호르크하이머는 계급관계에서 심리적 작용과 역사적 발전의 계기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생산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 구성원의 특성과 의식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간파했다. 또한 호르크하이머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가능성의 상실, 노동자 계급의식의 소멸, 좌파정당의 무기력과 독일공산당이 교조화되는 상황 속에서 나치 출현에 관한 이론적 해명 단서를 ‘의식을 왜곡하는 본능의 추동체’로 해명하려는 정신분석학에서 찾았다.<sup>13)</sup>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와 나치 출현의 해명을

11) O. Decker/C. Türke, “Vorwort”, in: Ders., *Kritische Theorie- Psychoanalytische Praxis*, Gießen 2007. 7쪽 참조.

12) GS3, 59쪽.

13)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호르크하이머의 현실인식과 1930년대 그의 맑스 이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이종하, 「호르크하이머: 맑스 철학의 수용과 비판」, 『동서』

위한 새로운 비판적 사회이론은 “맑스주의의 필연적 보충”<sup>14)</sup>물인 정신분석학의 토대위에 구축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사회이론의 심리주의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호르크하이머 심리주의적 역사기술도 심리학을 수반하지 않는 역사기술 만큼이나 불충분한 것<sup>15)</sup>이라고 보았으며 이 시각은 사회이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딜타이나 마키아벨리가 수행한 심리주의적 역사해석의 시도를 비판한다.<sup>16)</sup> 그는 정신분석학이 역사학의 “보조학문(Hilfswissenschaft)”<sup>17)</sup>이상이 될 수 없듯이 정신분석학이 새로운 비판적 사회이론의 전부가 아닌 보조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호르크하이머 관점에서 정신분석학 역시 사회이론의 보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사회적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결여한 정신분석학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 개인 심리의 정상화만을 문제 삼는다. 정신 병리적 접근으로서의 심리치료에 경도된 심리학은 정상성의 문제, 적응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현실의 정당성 문제를 천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신분석학은 결국 체제순응

철학연구, 제53호, 2009, 162쪽 이하 참조.

14) W. Bonß, “Psychoanalyse als Wissenschaft und Kritik”, in: A. Honneth/W. Bonß (Hg.), *Sozialforschung als Kritik*, Frankfurt a. M. 1987, 379쪽.

15) GS2, 368쪽 참조. 심리학, 특히 사회심리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비단 호르크하이머뿐만이 아니라 피벤탈, 슈테를하임, 프롬, 마르쿠제, 아도르노, 벤야민 모두가 공유했던 바이다. 비판이론학파의 초기에 프롬이 학과 내 전문가로 통했다. 프롬은 정신분석학과 맑스주의를 결합시켜려는 호르크하이머의 연구기획을 이론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시기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트에 관한 이론적 입장은 프롬에 힘입고 있다.

16) 딜타이는 역사적 과정에서 경제, 법, 종교, 예술, 학문과 같은 문화체계들 등과 같이 다양한 형식의 문화적 표현 방식이 인간의 영혼(Menschenseele)의 실현, 정신의 객관화의 결과이며 또한 이것은 끊임없는 변화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딜타이의 역사철학적 사유에서 역사는 본질적으로 정신사(Geistesgeschichte)이다. 호르크하이머는 역사를 정신사가 아닌 사회적 삶의 과정의 산물로 이해한다. 역사는 정신의 표현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전향적인 투쟁의 산물이다. 호르크하이머는 마키아벨리의 인간 본성 동일론, 성격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를 인간심리의 존재론적 설정(ontologische Setzung)으로 지칭하며 비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GS2, 185쪽 이하 참조.

17) GS3, 57쪽.

과 제제적응의 수단으로 봉사하게 된다. 심리치료기술(Psychotechnik)로 전락한 심리학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적 인식은 비판적 사회이론이 정신분석학의 보조학문이 되어야하며 상호보완적 관계이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sup>18)</sup>

### 3. 정신분석학의 비판·계몽적 성격

비판적 사회이론이 비판·계몽적 성격을 함유 하듯이 비판적 사회이론의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정신분석학도 비판·계몽적 성격을 갖는다. 이 점을 드러내기 위해 호르크하이머는 기존의 해석들과 달리 프로이드 정신분석학<sup>19)</sup>에 철학적 해석을 시도하며 정신분석학의 철학적 위상을 부각시킨다. 그에 따르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단순한 분과학문 그 이상을 의미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인간 실존의 비합리성 이해를 위한 열쇠, 개인과 사회적 삶의 과정의 수수께끼와 같은 총체성을 여는 열쇠”이며 “모든 비합리성에 의한 파괴적인 문명의 위협에 대항하는 하나의 유의미한 도움”<sup>20)</sup>을 제공한다. 이 점에서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철학적 모티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으로 간주한다. 호르크하이머에게 정신분석학은 하나의 비판철학이며 동시에 계몽적 성격을 갖는 철학이다. 비판의 철학으로서 정신분석 철학은 “지배 이데올로기의...마술을 분쇄”<sup>21)</sup>하고 “형이상학적 환상, 편견과 미신의 제

18) A. Lorenzer, “Psychoanalyse als Kritische Theorie”, in: A. Schmidt/N. Altwicker (Hg.), *Max Horkheimer heute: Werk und Wirkung*, Frankfurt a. M. 1986, 270쪽.

19) 호르크하이머가 사용하는 심리학 개념은 다의적이다. 그의 어법에서 심리학은 많은 경우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의미한다. 그러나 호르크하이머는 심리치료를 의미하는 경우에 심리치료 개념을 사용하며, 때로는 심리학으로 표기한다. 경험적 심리학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학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프로이드적 정신분석학 이외의 다른 심리학도 심리학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을 문맥에 따라 사용할 것이다.

20) GS5, 398쪽.

21) 같은 책, 397쪽.

거”<sup>22)</sup>를 자신의 과제로 삼는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은 전통철학이 추구한 철학적 환상을 해체시킨다. 그의 해체의 전략은 “개인적·사회적 습관과 가치관을 생물학적 욕구로 환원”<sup>23)</sup>시키는 방법이다. ‘생물학적 유물론’으로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관념론, 이데올로기, 높은 가치, 낭만적 사랑개념에 대항하는 비판의 수단이기도 하다.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계몽’과 ‘계몽의 장소’로, 프로이드를 ‘계몽가’로 지칭한다. “프로이드식의 (정신)분석적 계몽”<sup>24)</sup>의 성격은 “인간의 불행이 금기의 영향과 심리적이고 심리외적 억압의 다른 형식들 하에 발생한 모든 진리의 왜곡에서 연유”<sup>25)</sup>한다는 기본 시각에 있다. 또한 프로이드의 “인식주도적 관심이 모든 타율적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이라는 의미에서 계몽”<sup>26)</sup>에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호르크하이머에게 정신분석학의 계몽적 성격이란 정신분석학에 내재한 휴머니즘적 성격을 의미한다.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정신분석학은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보다 더 사변적이지도 않으며, 사회에 독재를 야기한 그의 기초존재론보다 인간 삶을 더욱 더 인간화하고 인간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sup>27)</sup>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고유한 내면에 알려지지 않은 힘들을 완전하게 다루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기계화된 문화(*motorisierte Kultur*)속의 불만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학문적 도구가 될 수 있다.<sup>28)</sup>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담지한 비판적, 계몽적 성격과 휴머니즘적 성격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지속적인 강조는 비판적 사회이론의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이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하나의 비판·계몽의 철학으로 간주하는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은 중기와 후기 호르크하이머에게 일관되게 고찰된다.

22) 같은 책, 402쪽.

23) 같은 책, 396쪽.

24) 같은 책, 396쪽.

25) 같은 책, 401쪽.

26) 같은 책, 400쪽.

27) GS6, 295쪽 참조.

28) GS8, 106쪽 이하 참조.

#### 4. 나치즘의 분석도구로서 정신분석학

##### 1) 『권위와 가족』 : 권위-가정-나치의 관계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을 새로운 사회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택한 호르크하이머는 나치체제 하에서 권위에 대한 연구를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한다. 권위와 가족에 관한 호르크하이머의 연구는 사회주의 혁명가능성의 상실과 나치체제를 가능하게 한 사회심리의 심층탐색을 의미한다. 호르크하이머는 권위와 가족의 연구프로젝트의 방법론의 핵심을 정신분석학에 두었다. 『권위와 가족에 대한 연구』<sup>29)</sup> 서문에서 그는 권위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새로운 시대(나치즘)에 접어든 사회에서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세계관을 연구하면 할수록 권위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sup>30)</sup>

29) 이 연구의 모태는 프롬이 1928년 이후 부분적으로 수행한 독일 노동자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프롬은 당시 정신분석학 연구소에서 활동하면서 위의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연구를 위해 호르크하이머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다. 프롬의 연구목적은 독일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권위와 가족에 대한 태도, 정당 및 투표성향과 같은 정치적 태도 등의 경험연구를 통해 나치즘의 발생과 확산을 해명하는 것이었다. 호르크하이머는 1930년 프롬을 사회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영입하고, 1932년부터 위의 연구과제를 사회연구소의 핵심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권위와 가족연구는 혁명의 실패와 나치즘의 발흥을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프로젝트이다. 이 연구프로젝트는 호르크하이머가 연구 전체를 관리하고 프롬, 마르쿠제, 폴록 외에 2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였다. 호르크하이머는 권위 문제에 관한 일반론, 프롬은 권위적 성격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연구, 마르쿠제는 루터로부터 시작해 맑스까지 나타난 권위현상에 관한 이념사적 고찰을 시도했다. 애초에 기획된 폴록의 권위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완료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호르크하이머 자신은 처음에 이 작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으나 연구소가 표명한 학제간 연구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일반적 이론부분을 담당하였다. R. Wiggerhaus, *Die Frankfurter Schule*, München 1988, 172쪽 참조.

30) GS3, 330쪽.

호르크하이머는 사회에서 작동하는 권위를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을 가정의 가부장적 구조로 인식한다. 사회적 관계는 가족 내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가족구조는 사회적 관계를 확고하게 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권위-가정-나치체제의 내적 관련성에 관한 호르크하이머의 이론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권위문제에 관한 호르크하이머의 일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호르크하이머에게 권위는 인간의 모든 역사에 존재해왔으며 권위의 강함과 약함은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권위는 “핵심적인 역사적 범주”<sup>31)</sup>이다. 권위는 모든 시대의 개인과 그룹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에 의해 실현된 인간의 역사 역시 노동을 둘러싼 명령과 지시에 대한 자발적 복종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을 위한 행위나 그와 같은 활동에서 형성된 행위, 반응방식 모두 권위개념 아래 포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권위는 무엇인가? 호르크하이머는 권위개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한 권위 개념을 규정하는 것 역시 공허한 것이다. 권위개념은 권위의 발생과 작동방식의 역사·사회적 문맥의 구체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호르크하이머는 임시적으로 권위를 외부적 요청에 복속당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내적이고 외적인 행동방식 및 반응방식과 관련해 파악하자고 제안한다.<sup>32)</sup> 역사적 범주로서 권위는 이중적 작용을 갖는다. 권위는 ‘인간 능력 발전의 조건’이지만, 동시에 경제영역에서 물질적 종속관계의 영구화와 정신력 무능력의 영속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sup>33)</sup> 권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작용되는가는 각각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의 총체성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호르크하이머가 권위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권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일종의 “승인된 종속성(*bejagte Abhängigkeit*)”으로서의 권위이다. 승인된 종속성으로서 권위는 개인의 이

31) 같은 책, 359쪽.

32) 같은 책, 359쪽 참조.

33) 같은 책, 360쪽 참조.

해와 사회그룹(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호르크하이머는 아동의 인성과 능력 개발을 하는 좋은 교육체제 하의 아동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이 경우 아동의 승인능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것이 호르크하이머가 말하는 것 자체를 오해할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해에 기초한 권위 승인의 자발성’인 것이다. 이 문맥에서 호르크하이머는 ‘개인의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좋은 권위의 승인가능성’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의 주장은 무정부적 권위거부에 대한 입장에 관한 반론적 성격을 갖는다. 호르크하이머는 생산과정에 왜 권위가 필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사회적 노동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지도와 실행기능의 구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원시시대로 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4)</sup>

위와 같이 호르크하이머는 합리적 권위에 대한 승인을 강조한다. 합리적 권위의 승인 자체가 사회발전과 인간 능력 개발에 있어 의미 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승인은 강력한 외부로부터의 요구나 ‘현실적이고 의식적인 개인이해’에 바탕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호르크하이머에게 권위 승인은 ‘인정(Anerkennung)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권위의 인정은 사실성(Tatsachen)의 인정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와 사업자간의 자유롭게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권위 문제는 노동자에 의한 “경제적 사실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며 그 기초위에서 사업자의 권위와 힘의 확립이 실제로 인정된다. 경제적 사실성은 노동자의 계약체결의 급박성, 경제력의 차이, 직접적인 배고픔과 비참함의 인정이다. 이러한 인정은 ‘익명의 신으로서 맹목적인 경제적 메커니즘’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간의 권위는 상위계급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형식이 아닌 상품, 가격, 권리형식, 소유관계와 같

34) 같은 책, 386쪽.

은 경제적 자료에 기초해 경제적 예측을 '자연적인 사실'로,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다.<sup>35)</sup> 호르크하이머는 새로운 권위관계로서 나치와 추종자의 관계가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정치지도자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의 인정위에서 작동된다고 본다. 호르크하이머가 권위승인에 대한 절차로서 인정의 단계는 평등한 조건에서의 쌍무적 계약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정'은 현실적인 권력(권위)관계에 대한 시인의 성격이다. 두 번째로 권위에는 단순한 위압적인 권력이나 억압에 기초한 권위가 있다.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권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제기 되는 권위는 가족, 학교, 교회 등과 같은 제도들에 의해 형성되고 작용한다. 단순 폭력과 강압에 의한 물리적 권위에서 제도화된 권위로의 발전 뿐만 아니라 권위의 형성과 발전, 작용방식은 사회·역사·문화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권위에 대한 개념분석과 함께 호르크하이머는 데카르트, 볼테르, 로크, 칸트, 피히테를 신, 전통, 관습 등과 같은 권위적 사유를 거부하고 권위에 대한 믿음에 대해 싸움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한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들이 비합리적 권위에 대한 해방으로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개인을 현실적인 존재조건에서 고찰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권위는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허상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sup>36)</sup> 이와 같은 이유로 호르크하이머는 권위를 사회와의 관계 특히 사회와 가정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다. 권위문제에서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의 사회적 기능 때문이다. 가정은 “인간의 성격을 재생산하고 사회적 삶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창구중의 하나”이며 “부르주아 질서의 존속을 위해 특

35) 같은 책, 379쪽 참조.

36) 같은 책, 362쪽 이하 참조. 실제로 의미 있고 차원 높은 권위는 호르크하이머의 지적처럼 “개인의 이해와 착취가 해체”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더 좋은 사회, 이성적인 사회라는 호르크하이머 비판이론의 이념은 ‘자유로운 시민들의 연합’으로 나타나지만, 이 연합은 ‘사회연대’의 가치에 근거한다. 호르크하이머가 시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권위는 ‘개인의 이해’를 넘어서고 ‘억압과 착취’가 제거된 비판이론의 이념과 맞닿아 있다. 권위의 문맥에서 보면, 해방 사회는 부정적 ‘권위 없는 사회’이며 긍정적인 권위가 인정·승인되는 사회이다.

수한 권위적 태도에 필수불가결한 능력을 부여”<sup>37)</sup>한다. 호르크하이머는 가정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는 생산관계의 변화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다.

호르크하이머의 가정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서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 분석적 준거로 삼는 부르주아 가정의 아버지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특히 호르크하이머는 가정의 역할을 프로이드 심리학의 마조히즘의 개념들 내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르주아적 가부장적 질서 체제하에서 자녀와 부인은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자녀의 성장가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발달을 지배하는 것은 가장이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파악, 적응, 실천해야만 하는 심리적 종속상태에 놓이게 된다. 가장은 ‘항상 옳으며 자녀는 가장이 원하는 이상적인 것과 행동의 조화를 추구하는 심리적 상태를 강요받게 된다. 자녀의 의지포기와 순응의 대가는 가장에 대한 “피학대적 경향(die masochistische Neigung)”<sup>38)</sup>이다. 가장의 권위는 의심받지 않는다. 아동들은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자녀의 결혼문제에서도 가장은 자녀의 에로스적 사랑을 제어하기 위해 ‘도덕적, 심리적 억압’을 가한다. 이것은 가장이 집의 지배자(Herr im Haus)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가장의 힘은 가정 내 독점적 경제적 지위와 그의 물리적 강인함에 기초한다.<sup>39)</sup> 가장의 아내, 역시 심리적 종속성에 놓여 있다. 가장은 여성의 심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사회적 삶은 가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여성의 심리와 지위는 가장의 지위와 수입에 종속되어 있다.<sup>40)</sup> 이 문맥에서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드 심리 분석을 심층심리 분석으로 간주하면서 심층심리학이 심한 열등감,

37) 같은 책, 388쪽.

38) 같은 책, 400쪽. 호르크하이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가장에 대한 자녀의 복종을 프로이드의 거세 콤플렉스 개념을 여과 없이 수용함으로써 설명한다. 거세에 대한 두려움은 아버지와 유사성과 친근성을 추구하고 그 방법이 복종이라는 것이다. 억압당한 가장에 대한 증오는 영원한 원한감정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GS5, 222쪽 참조.

39) 같은 책, 396쪽 이하 참조.

40) 같은 책, 409쪽.

질서와 예측적 삶으로의 심리적 삶의 편향, 비자립적 태도와 같은 권위적 성격유형의 설명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은 가정 내의 권위적 성격유형의 형성은 자녀의 모든 실패를 사회적 원인이 아닌 개인(자녀)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모든 실패를 종교적으로 죄악시키는 태도와 실패를 부족한 재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주의적인 것으로 실체화 시켜버리는 태도를 학습하는 가정 내의 분위기가 권위적 성격 형성에 결정적이다. 권위적 가정의 교육은 죄책감, 희생의 각오, 고유한 의사결정과 독자적 행위에 대한 혐오, 비판 없는 봉사의 태도를 내면화시킨다.<sup>41)</sup>

그러나 가정의 “심리적, 육체적 폭력”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는 기계적이지 않으며 “긴장과 대립의 상호 얽힘과 관계의 총체성에 의해 매개”<sup>42)</sup>된다. 이 관점에서 호르크하이머는 산업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가정의 권위를 몰락(Verfall der väterlichen Autorität)시켰는지를 설명한다. 수입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조건적이던 사회적 그룹의 존재양상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정의 권위 몰락은 가정의 심리적, 도덕적, 물리적 폭력이 더 이상 가족구성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장 권위몰락의 원인은 첫째, 국가와 학교의 역할 증대이다. 국가와 학교가 가정 내 사회화 기능을 흡수하면서 가정은 도덕적, 정신적 권위를 상실한다. 둘째, 가정구성원의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은 가족구성원의

41) 같은 책, 398쪽 이하 참조. 호르크하이머의 설명은 사실 프롬의 권위주의적 성격 분석의 영향을 받고 있다. 프롬은 권위적 성격의 특징을 사도마조히즘(Sadomasochismus)으로 규정한다. 권위적 성격유형은 자아포기, 자기희생, 권력에의 예측에 쾌락을 느끼는 마조히즘적 성격과 자신보다 약자인 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새디즘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권위적 성격은 무력감의 심리적 상태에 지배를 받는다. 프롬은 나치즘은 무력감의 토양위에 세워지고 나치즘은 무력감을 조장하는 상호규정적인 것으로 고찰한다. 호르크하이머는 프롬의 권위적 성격 유형의 연구를 수용해 전체주의적 인간유형(der totalitäre Typus)의 특징을 1) 감정표현의 결여 2) 흑백 논리적 사고 3) 다양성의 비난 4) 약한 것의 증오 5) 동정심의 결여 6) 자신의 이해대로 타자 평가 7) 냉혹함 8) 타자를 도구로 간주 등으로 파악했다. GS8, 80쪽 이하 참조.

42) 같은 책, 412쪽.

경제적 종속성을 해체시킴으로써 가장의 권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행복과 사랑에 대한 개인의 욕구와 가족 내 가장의 지배적 욕구사이의 간격과 갈등을 야기시킨다.<sup>43)</sup> 그렇다면 가장의 권위상실과 기존 가정의 사회적 기능의 약화가 곧 가정의 상실과 가정해체를 의미하는가? 호르크하이머는 가정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만을 주목하고, 정서적 역할과 같은 가정의 비기능적 요소가 여전히 가정의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한다. 또한 가장의 권위구성의 요인을 경제력과 완력의 차원에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권위와 가족』의 연구프로젝트는 호르크하이머에 의해 기획되지만, 이 연구프로젝트의 목적인 가정 내 형성된 권위적 성격유형과 파시스트적 성격유형의 상호관련성의 해명을 위한 경험적 분석은 호르크하이머의 몫이 아닌 프롬의 것이었다. 『권위와 가족』의 서언과 이론부분 <권위>에서 호르크하이머의 분석은 권위개념, 권위의 인정문제, 사상사에서 권위의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1) 가족 내의 정서적 결합과 불합리한 권위관계로서 나치와 나치 추종자, 나치와 일반 시민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설명과 2) 내면화된 권위로서 자녀의 초자아형성과 가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 및 3) 자아약화, 자아해체(Ich-Abbau)와 초자아적 권위형성의 관계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해명을 설득력 있게 제공하지 못한다. <가족>에서도 호르크하이머는 가장 권위의 이상화를 언급하면서도 이것과 히틀러의 이상화의 관계, 가장 권위의 형성과 작동방식과 나치의 권력 작동 방식에 관한 비교분석을 하지 않는다. 호르크하이머는 프롬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나치가 가정 내의 권위적 성격의 형성과 작용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체제에 적극 활용했다고 강조할 뿐이다.<sup>44)</sup> 정신분석학을 응용한 권위-가족-나치관계에 관한 호르크하이머의 미진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석은 권위적 가정이 아닌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가정에 대

43) 호르크하이머는 사랑으로 인한 가정 내 권위와의 갈등으로 <로미오와 줄리엣>, <돈 주앙>을 지적한다. 개인의 권리와 권위간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는 <음모와 사랑>, <봄의 깨어남>, <친화력>을 들고 있다.

44) GS5, 395쪽.

한 기대가 숨겨져 있다. 호르크하이머는 가정을 “권위 행사의 연습장”<sup>45)</sup>이나 “잠재적 파시스트”<sup>46)</sup>의 권위적 성격의 형성하는 장소가 아닌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저항가능한 장소로서 이해할 것을 암시한다. 사회해방을 추구하는 비판이론의 이론적 기획은 기존 사회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장으로서 가정이 아닌 사회해방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새로운 가정의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호르크하이머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 내의 관계구조의 변화를 위한 정신분석학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그는 가정의 심리적 메커니즘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밀도 있게 진행하지 않은 채 권위적 인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을 교육에서 찾는다. 그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자발적이고 생동적인 관계를 갖는 능력을 형성해 내는 심도 있는 교육적인 과정을 역설하며, 유아기부터 그러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sup>47)</sup> “교육은 자율적인 양심과 강인하고 자기 확신적인 자아형성을 지향”해야 하고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문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합목적이지 않은 자극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호르크하이머에게 교육이란 편견과 선입견, 권위적 성격에 관한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야만에 대한 저항”<sup>48)</sup>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 나치의 정신분석학적 설명 시도로서 『권위와 가족』의 이론부분에서 호르크하이머의 분석도 충분한 것이 아니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그의 의도는 분명한 것이었다. 『권위와 가족』 연구프로젝트의 의도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역사철학적 언어로의 변형을 통해 좀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

45) 같은 책, 384쪽.

46) 같은 책, 388쪽.

47) GS8, 76쪽 참조.

48) M. Horkheimer, “Persönlichkeit und Vorurteil”, i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g.): *ber Vorurteile*, Bonn 1968, 5. 6쪽.

## 2) 『계몽의 변증법』과 정신분석학

『계몽의 변증법』은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수용과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이 저작의 저작 전반에서 차지하는 정신분석학적 범주의 위상과 적용에서 보면 정신분석학의 위상과 역할은 숨어 있다. 그러나 특정 주제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그 어떤 관련 저작들에 비해 프로이드의 개념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권위와 가정』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계몽의 변증법』은 총체적 지배가 실현된 사회의 해명에서 사회 심리적 설명보다는 철학적·인간학적 설명모델이 중심이 됨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계몽의 변증법』 자체는 비판적 사회이론에 근거한 인간해방의 프로젝트로부터 부정적 역사철학(negative Geschichtsphilosophie)으로의 비판이론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의 변증법』의 「반유태주의적 요소들」과 「문화산업」장은 다시금 정신분석학이 개인과 집단의 비합리적 태도와 행동, 사회에 의한 충동 조절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유효한 사회 인식의 설명도구임을 잘 보여준다. 「반유태주의적 요소들」은 나치와 나치시대의 정치사회적 현상에 내재한 객관적 비합리성의 주관적 조건을 조명하는 ‘나치발생의 사회심리학’을 자처한다. 「문화산업」장은 충동 메커니즘의 어떻게 문화산업에 의해 조정되는지에 관한 설명을 위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범주를 불완전한 방식으로나마 적용한다.

『계몽의 변증법』의 근본주제인 ‘신화는 이미 계몽이었고, 계몽은 신화로 되돌아간다’는 문명사 전반에 대한 역사철학적 해명을 위해 프로이드의 퇴행(Regression)개념을 문명사적 관점에서 변형시킨다. 프로이드는 퇴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초기의 심리적 상태는 오랫동안 표현되지 않는다. 그 심리적 상태는 어느 날 심리적 힘들의 표현형식이 되는 시점까지 잠재해 있다. 또한 그것은 이후의 모든 발전이 없어지고 마치 되돌려질 수 있는 유일한 표현형식인 것과 같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심리적 발전의 특이한 형성은 그것의 형성방향에 있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

은 되돌리기를 위한 특별한 능력으로서 퇴행(Regression)으로 표시한다.”<sup>49)</sup>

프로이트가 심리의 원초적 충위가 어떻게 다년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가를 퇴행개념으로 설명을 시도한 것에 착안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문명의 비합리성을 계몽의 신화로의 퇴행이라는 테제정립을 통해 설명한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인 상태에 들어서는 대신에 새로운 종류의 야만상태에 빠지는가”<sup>50)</sup>와 같은 호르크하이머의 근본물음은 프로이트 퇴행개념의 인간학적, 역사철학적 변형을 의미한다. 『계몽의 변증법』은 이성이 어떻게 지배와 결합함으로써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하는지, 문명의 조건으로서의 자연지배적 이성이 인간의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문명의 비합리성을 노정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퇴행이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범주에 입각한 이성비판이자 문명비판이다. 퇴행개념과 함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개념들을 통해 부정적 역사철학에 심리학적 범주를 적용한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게 억압이란 이성에 의해 억압된 자연을 말한다. 이성은 “모든 비이성적인 것을 적대시하는 원리”<sup>51)</sup>를 작동시킴으로써 자연을 억압한다. “문명은 자연에 대한 사회의 승리”<sup>52)</sup>이다. 문명은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의 억압과 지배의 산물이다. 내적 자연의 억압은 단지 ‘감정과 자연적 충동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조롱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성격”과 “배설물이나 육체에 대한 역겨움으로부터 광신, 나태, 정신적 육체적 가난에 대한 경멸”<sup>53)</sup>과 같은 일련의 행동양식을 포함한다. 그런데 억압된 자연은 제거되지 않은 채 병리적인 대체물을 형성한다. 문명이 야만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억

49) S. Freud, *Gesammelte Werke*, Bd. X, Frankfurt a. M. 1974, 337쪽.

50) GS5, 16쪽.

51) 같은 책, 112쪽.

52) 같은 책, 216쪽.

53) 같은 책, 115쪽.

압된 것의 회귀가 어떻게 반유대주의와 같은 폭력적 야만으로 나타나는지를 프로이드 투사와 편집증 개념을 원용해 설명한다. 프로이드에서 투사는 편집증 환자에게만 발견되는 징후가 아니다. 투사는 “외부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념형성에 일정한 몫”을 차지한다. 투사는 “내부에서가 아닌 .... 외부로부터 오는 확실한 감각지각의 원인”<sup>54)</sup>을 제공한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지각작용이 투사다”<sup>55)</sup>라고 말하는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프로이드의 투사개념을 따라고 있다. 호르크하이머에게 투사는 자연적인 것이다. 인간의 생존투쟁 속에서 투사는 자동화된다. 일종의 무의식적 자동화 작용인 투사는 외부세계와 주체간의 다리를 놓는 행위이다. 프로이드처럼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게도 투사는 자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아를 구성하는 인간은 투사를 정교화하고 억제하며 자기통제 하에 두는 것을 배운다. 대상세계에 대한 지각과 대상간의 관계에 의해 자아를 구성하는 이성 활동은 반성작용이며 일종의 의식적인 투사이다. 그런데 반유대주의의 투사는 반성이 결여된 병적인 요소를 내포한다.<sup>56)</sup> 이 점에서 잘못된 투사이다.

“반유대주의는 잘못된 투사에 기초한다. ... 잘못된 투사는 분출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내면세계와 외부세계를 혼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친근한 경험들을 적대시 한다. 잘못된 투사는 자신의 것이면서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주체의 충동들을 객체의 탓으로 돌린다.”<sup>57)</sup>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에서 병적인 투사(pathische Projektion)는 “사회적으로 터부시된 충동들을 주체로부터 객체로 전이”<sup>58)</sup>시키는 것을 말한다. 병적인 투사는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반유대주의에서 유대인 개인은 고약

54) S. Freud, *Gesammelte Werke*, Bd. VIII, Frankfurt a. M. 1974, 303쪽.

55) GS5, 217쪽.

56) 같은 책, 219쪽.

57) 같은 책, 217쪽.

58) 같은 책, 222쪽.

한 전염성의 존재, 유대인은 게르만 민족공동체의 조화를 해치는 존재로 투사된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이와 같은 투사 속에 숨겨진 욕구를 읽어낸다. “전체 유대인은 금지된 주술과 피의 제의에 참여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 비난 속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것은 미메시스적인 희생 제의로 돌아가려는 원주민(게르만 민족)의 무의식적인 욕구이다. 비난을 통해 그들은 이 욕구를 의식적으로 즐겁게 수행한다.”<sup>59)</sup> 병적인 투사 속에 숨겨진 공격성은 “타인의 육체를 질투, 공격, 박해한다.”<sup>60)</sup> 병적인 투사가 “체험된 선사시대의 모든 잔혹성”<sup>61)</sup>을 유대인에게 실행하는 것이다. 반유대주의의 병적인 투사는 편집증과 결합한다. 편집증 환자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 만들고 해석한다. 그는 외부세계를 자신의 목적에 일치하게 지각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주어진 대상의 고유한 속성은 제거되고 편집증 환자의 체계 속에 용해된다. 편집증적 성격은 사유의 초일관성을 가지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정한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며 편집증 환자의 고정관념이 그려놓은 원안에서만 작동한다.<sup>62)</sup>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보기에 나치즘은 “대중이 편집증에 걸린 새로운 조건”을 광적으로 조종·유포한 체계이다. 이 점에서 나치즘은 “편집증적 광기의 특별한 예”<sup>63)</sup>이며 그것 자체가 “광기의 체제”<sup>64)</sup>인 것이다.

반유대주의 분석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프로이드의 투사와 편집증 개념은 후기 자본주의 분석에서 그 유효성을 잃는다. 그러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후기 자본주의의 분석에서 프로이드 심리학의 범주는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총체적 지배국면에 들어선 후기 자본주의에서 문화산업은 개인의 충동조절 메커니즘을 관장한다.

59) 같은 책, 215쪽.

60) 같은 책, 222쪽.

61) 같은 책, 215쪽.

62) 같은 책, 220쪽 이하 참조.

63) 같은 책, 223쪽.

64) 같은 책, 228쪽.

“충동조절 메커니즘의 주체는 심리학적으로 교묘히 이용당해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그 대신 사회 자체가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양심과 자기유지와, 욕구의 갈등사이에서 개인은 매번 무엇을 할지에 대해 더 이상 고통스런 내적 변증법을 수행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sup>65)</sup>

개인의 충동조절은 문화산업의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된다. 문화산업은 충동을 승화시키지 않고 억압한다. 문화산업에서 성적 충동은 반복적으로 전회(Vorlust)를 자극하되 결코 충족시키지 않는 방식을 통해 전회를 마조히스트적으로 불구화시킨다.<sup>66)</sup> 문화산업 메커니즘은 자율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여러 내적 장치를 위축시킨다. 문화산업은 “위원회나 배우들이 자아나 초자아”로 기능하게 하며, “대중은 내적 검열메커니즘에 의할 때 보다 훨씬 힘 안 들이고 문화산업이 제시한 표어와 모델에 따라 자신을 만들어 간다.”<sup>67)</sup> 문화산업이 ‘주체임을 포기한 개인’을 양산한다. 아무런 판단도 스스로 내릴 수 없게 만듦으로써 소유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문화산업은 “유쾌한 거세”<sup>68)</sup>이다. “저항이 가능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품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 체제”로서 문화산업은 일종의 영원한 “거세위협(Kastrationsdrohung)”<sup>69)</sup>인 것이다.

『계몽의 변증법』은 프로이드를 다루는 호르크하이머의 전 저작에서도 프로이드 개념을 가장 빈번하고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계몽의 변증법』의 저작의 의도와 방법이 프로이드의 『문화 속의 불만』처럼 정신분석학 개념의 직접적인 적용을 통한 문명과 문화의 비판이 아닌 것 역시 분명하다. 『계몽의 변증법』은 호르크하이머가 『역사와 심리학』에서 보충학문으로서 정신분석학이 부정적 역사철학에 어떻게 이론적으로 기여

65) 같은 책, 234쪽.

66) 같은 책, 165쪽.

67) 같은 책, 234쪽.

68) 같은 책, 166쪽.

69) 같은 책, 167쪽.

하는가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 5.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트 비판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 및 사회 이론적 적용과 함께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프로이트에 관한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의 내용은 그의 초기, 중기, 후기사상 따라 심각한 차이를 노정하지 않는다. 어느 시기든 호르크하이머는 수용과 비판의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이트 비판의 초점은 사회학의 관점에서 심리학 비판의 성격을 갖는다. 먼저 초기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트의 타나토스 이론을 ‘체념적 문화허무주의’와 결합된 일종의 생물학주의로 간주한다.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트의 『문화속의 불만』에서 제기한 타나토스 이론이 증오, 공격성, 파괴성을 인간영혼의 기본 요소이며 하나의 본질적인 생물학적 사실로 간주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파괴의 충동, 즉 ‘악과 공격 및 파괴, 잔인성으로 기우는 인간’의 타고나는 경향을 생물학적으로 직접 규정된 정신생활의 한 가지 기본적 사실로서 설정한다.”<sup>70)</sup>

호르크하이머 관점에서 잔혹성의 모든 유형에 원인을 제공하는 원초적인 욕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에서나 일상적 삶에서 발견되는 잔혹성과 난폭성은 인간 영혼의 구성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 환경적 요인 및 억압적인 사회질서의 개인적, 사회적 투영과 학습의 산물이다.<sup>71)</sup> 이러한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은 인간 심리에 관한 프로이트식의 생물학주의를 호르크하이머식 사회 결정론적 관점에서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각에서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관점에 기초한 “파괴에의 본능”, “인간 상호 간의 원초적인 적의”에

70) GS4, 81쪽.

71) 같은 책, 84쪽 참조.

관한 가정은 억압된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로의 변화가능성과 광범위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사유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원초적인 공격적 성향을 제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호르크하이머의 관점에서 “생물학적 형이상학”<sup>72)</sup>으로 지칭되는 프로이드의 파괴와 죽음에의 본능의 가정과 대립되는 긍정적인 충동을 본질적인 인간의 성향으로 간주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성적인 사회의 실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호르크하이머에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적인 사회의 실현은 단순히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sup>73)</sup>이기 때문이다. 또한 파괴와 죽음에의 충동에 대한 가정의 확실성 자체는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파괴와 죽음을 향한 충동이라는 운명이 보다 더 이성적인 사회 속에서 어떠한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답”<sup>74)</sup>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드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한다. 그가 파괴의 충동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종교, 법률, 도덕을 이해하는 한, 대중 관리·통제를 위한 엘리트를 요구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다.

초기 호르크하이머와 달리 중기 호르크하이머는 죽음의 본능론(Todestrieblehre)에 관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의 미묘한 변화이다. 이와 같은 변화양상은 비판적 사회이론에서 문명비판으로, 사회이론에서 철학으로의 철학적 중심사유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그는 죽음에의 충동론을 일종의 상징적 묘사로 간주한다. 호르크하이머에게 죽음에의 욕망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한 개념이며 문명 자체의 파괴적 경향성을 탁월하게 개념화했다는 것이다.

“죽음의 본능과 연결된 일단의 개념들은 인간학적 범주들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프로이드적 해석이나 사용방식에 대해 우리가

72) 같은 책, 84쪽.

73) 같은 책, 83쪽.

74) 같은 책, 86쪽.

75) GS8, 305, 296쪽.

의견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개념들의 객관적인 의도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대한 프로이드의 위대한 통찰이 그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sup>75)</sup>

후기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이 가정하는 “심리적 정상성 개념(der Begriff der psychischen Gesundheit)”과 이른바 “건강한 태도의 기준 자체”<sup>76)</sup>를 문제 삼는다. 호르크하이머는 한 사회의 정상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병리적으로 혹은 비정상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신분석이 갖는 이러한 한계는 정신분석학이 상정하는 정상성의 역사성과 사회성에 대한 지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윤리나 도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정상성에 대한 호르크하이머의 비판은 정신분석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정신분석의 내재적 목표와 기능은 기존체제의 적응능력과 활동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 사회에 조응하는 감정생활과 행동방식, 직무능력을 정상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호르크하이머가 보기에 정신분석학과 여기에서 파생한 정신치료는 결국 위협적인 사회·정치적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광기나 병으로 간주하고 기존체제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체제유지에 기여할 뿐이다.<sup>77)</sup>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 비판은 그의 철학적 사유의 변화와 함께 비판의 무게중심과 내용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판 속에서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의 긍정적 평가를 잊지 않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 6. 나오면서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의 수용과 비판에서 특별히 새로운 이론 생산적인 측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론 생산의 결여는 그의 이론

75) 마틴 제이, 황지우 역, 『변증법적 상상력』, 돌베개, 1986, 166쪽 재인용.

76) GS8, 295, 304쪽 참조.

77)

생산 능력의 문제에 있지 않다. 그것은 정신분석학을 바라보는 호르크하이머의 관점에 기인한다. 호르크하이머는 정신분석학을 철저하게 ‘보조학문’ 이상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정신분석학과의 이론적 대결을 하지 않았다. 맑스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풍부한 유물론적 사회이론의 구축을 목표로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수용했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은 정치경제학적 사회분석이론에 우선될 수 없었다. 이 점은 호르크하이머의 전 사유단계에서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보조학문으로서 정신분석학은 나치체제의 발생과 확산을 해명하는 심층적 사회심리분석의 기제로 활용되었다. 『권위와 가족』의 연구보고서에서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적 범주를 희미하게 불분명하게 사용하며 프로이드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계몽의 변증법』은 부정적 역사철학의 구성에 프로이드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전체주체를 관통하는 테제나 반유대주의에 관한 논의에서 호르크하이머는 프로이드와 이론을 역사철학적으로,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재서술한다. 『계몽의 변증법』 이후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적 범주의 활용은 나치와 관련된 설명에 한정된다. 결국 호르크하이머에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나치와 관련된 제한적 주제를 해명하고 비판적 사회이론의 중심방법론인 정치경제학적 설명을 보완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또한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 수용의 급격한 변화의 흔적을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도 위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크하이머의 프로이드 수용은 한국 사회의 철학적 반성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신분석학이 하나의 유의미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박정희에 관한 향수,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욕망의 정치학’을 해명하는데 정신분석학은 유용한 설명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호르크하이머의 지적처럼 정신분석학은 한국사회의 철학적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 하나의 방법론이지 핵심적인 방법론이 될 수는 없다. 정치경제학적 분석, 사회 이론적 분석, 철학적 분석, 정신분석학적 분석의 상호침투와 매개 없는 한국사회의 분석은 그 설명력의 한계와

제한적 타당성을 노정할 것이다. 사회의 총체성에 관한 인식으로서 호르크하이머 비판철학의 이념은 학제간의 한국사회의 분석을 철학고유의 부정적 사유와 비판적 활동 안에서 유기적으로 매개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호르크하이머의 정신치료로 기능화된 정신분석, 정신분석학의 비판·계몽적 성격이 실증된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은 오늘날 미술치료, 음악치료, 색채치료, 독서치료, 상담치료 등 각종 심리치료 산업의 확장 논리에 의미 있는 대항논리를 제공해 준다. 비판적 의식의 고양에 배제된 심리치료 산업은 체제비판을 통한 합리적 사회, 더 이성적인 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체제순응의 기술과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는다. 정신분석학과 사회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오늘의 비판이론’은 호르크하이머의 위의 비판을 활성화해야 할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

(경희대학교)

### 참고문헌

- 마틴 제이, 황재우 역, 『변증법적 상상력』, 돌베개, 1986.
- 민형원, 「비판이론과 정신분석학(3)-초기비판이론으로부터 고전적 비판으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미학』 제51집, 2007, 129-158쪽.
- 이종하, 호르크하이머: 맑스 철학의 수용과 비판, 『동서철학연구』, 제53호, 2009, 159-180쪽.
- Noerr, G. S., “Zwischen Sozialpsychologie und Ethik”, in: O. Decker/C. Türke(Hg.), *Kritische Theorie- Psychoanalytische Praxis*, Gießen 2007, 15-44쪽.
- Bonß, W., “Psychoologie als Wissenschaft und Kritik”, in: A. Honneth/W. Bonß(Hg.), *Sozialforschung als Kritik*, Frankfurt a. M. 1987, 367-425쪽.
- Decker, O./Türke, O., “Vorwort”, in: Ders., *Kritische Theorie- Psychoanalytische Praxis*, Gießen 2007, 7-13쪽.
- Freud, S., *Gesammelte Werke*, Bd. VIII, Frankfurt a. M. 1974.
- \_\_\_\_\_, *Gesammelte Werke*, Bd. X, Frankfurt a. M. 1974.
- Horkheimer, M., *Gesammelte Schriften Bd 1*. Frankfurt a. M. 1987.
- \_\_\_\_\_, *Gesammelte Schriften Bd 2*. Frankfurt a. M. 1987.
- \_\_\_\_\_, *Gesammelte Schriften Bd 3*. Frankfurt a. M. 1987.
- \_\_\_\_\_, *Gesammelte Schriften Bd 4*. Frankfurt a. M. 1987.
- \_\_\_\_\_, *Gesammelte Schriften Bd 5*. Frankfurt a. M. 1987.
- \_\_\_\_\_, *Gesammelte Schriften Bd 6*. Frankfurt a. M. 1987.
- \_\_\_\_\_, *Gesammelte Schriften Bd 7*. Frankfurt a. M. 1987.
- \_\_\_\_\_, *Gesammelte Schriften Bd 8*. Frankfurt a. M. 1987.
- \_\_\_\_\_, *Gesammelte Schriften Bd 9*. Frankfurt a. M. 1987.
- \_\_\_\_\_, “Persönlichkeit und Vorurteil”, i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g.): *ber Vorurteile*, Bonn, 1968.

철학탐구 제26집

Lorenzer, A., "Psychoanalyse als Kritische Theorie", in: A. Schmidt/N. Altwicker  
(Hg.), *Max Horkheimer heute: Werk und Wirkung*, Frankfurt a. M.  
1986, 256-278쪽.

Wiggerhaus, R., *Die Frankfurter Schule*, Frankfurt a. M. 1996.

## Zur Freud-Rezeption bei Horkheimer

Jong-Ha Lee

Freuds Psychologie aus Sicht von Horkheimer wird zur Überwindung der theoretischen Grenze von materialistischen Sozialtheorie und zur Erläuterung der Erweiterung des Nationalsozialismus für eine relevante Methodologie gehalten. Bei ihm bleibt jedoch die Psychologie Freuds immerhin als eine Hilfswissenschaft für die Geschichtsphilosophie und Sozialphilosophie. Horkheimer wirft Marx neben seinem Dogmatismus vor, er pflegt die komplizierende Rolle der psychischen Zwischenglieder zu vernachlässigen. Für Horkheimer ist die Psychologie eine kritische Philosophie. Er betont das kritische Potential psychoanalytischer Philosophie. Ein kompromißloser Kämpfer gegen jeglicher Zwänge ist das der Kern der Freudischen Lehre. In diesem Sinne wird Psychologie als Aufklärung bestimmt. Weiterhin kann die Psychologie nach Horkheimer Ansicht dazu beitragen, das Leben der Menschen humaner zu gestalten. Daraus kritisiert die falsch betriebene Psychoanalyse, die lediglich als ein Hilfsmittel zur Anpassung an die bestehende Gesellschaft fungiert. Horkheimer erhellt Autoritätsstruktur in der Familie, die im geschichtlichen Gang veränderbar ist. Die Situation in der Familie prägt die Charaktere und bereitet sie die Autoritätsstruktur in der Gesellschaft vor. Im Buch *Autorität und Familie*, das die Freudischen Methoden im Hintergrund sehr große Rolle gespielt hat, ist Psychoanalyse über das Verhältnis zwischen Autorität, Familie und Nationalsozialismus nicht hinreichend erklärt, in dem Sinne, dass Horkheimer das obengenannte Verhältnis mit den Freudischen Begriffen nicht erhellt und damit nicht in Einklang bringt. Im Vergleich dazu ist *Dialektik der Aufklärung* die psychoanalytischen

Begriffe in angemessener Weise verwendet und mit der Zivilisationskritik  
ervollreich zur Verbingung gebracht. Als der Begriff der Psychologie  
nimmt Horkheimer die Widerkehr des Verdrängten, Regression, Projektion  
und Paranoia auf. Demyufolge beruht der Antisemitismus auf falscher  
Projektion und Paranoia. Horkheimer überzeugt davon, die Quelle des  
Antisemitismus in Unbewußt zu finden. Deshalb gewinnt die Psychologie  
eine besondere Bedeutung. Bei Freud-Rezeption Horkheimers ist es  
schwer, ein sichtbares Umbruch im seinen Gedankengang herauszufinden.  
Dies beruht auf der beschrängten Rezeption und dem Diatanzhalten  
gegenüber der Psychologie. Freud-Rezeption bei Horkheimer bietet eine  
reizvolle Anregung für die philosophische Reflexion über die  
Korea-Gesellschaft und sie ist auch aufschlußreich, wenn man die  
Gesellschaft im Bezug auf die Totalität konzipieren will. Dabei bietet sie  
die starke Argumentation gegen die in der koreanische Gesellschaft breite  
industrierte Psychotherapie.

[ Schlagwörter ] Horkheimer, Freud, Psychoanalyse, Hilfswissenschaft,  
Autorität und Familie, Dialektik der Aufklärung

이종하 e-mail: leefreiheit@hanmail.net

투 고 일	2009년 10월 15일
심 사 일	2009년 11월 16일
게재확정	2009년 11월 18일